

코로나19 '고3 구제책' 혼란만 부추긴다

서울 주요대학들 내놓은 구제 방안 근시안적 발표 많아 비교과·특기활동 학교에서 최선 다해서 임하는 게 중요

'코로나19'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들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주요대학들이 구제 방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도움이 되지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경기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고려대와 경희대·서강대·숙명여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 등 10여개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고3들이 학생부 관리 및 학습 결손이 있어 재수생보다 불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반영되는 비교과 영역이 졸업생보다 부실해 불리하다는 학생·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었다.

◇수도권 주요대 학종 '알아서 평가' 부분 조정에 그쳐=하지만 최상위권인 연세대와 서울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상반된 입장을 취한데다, 대부분 주요 대학들도 사실상 '알아서 평

가하겠다'는 대책만 발표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세대는 2021학년도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결석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중간·기말고사 성적과 교과 활동이 기재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만으로 학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와는 정반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손질했다. 수시에서 고3만 응시할 수 있는 학종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3개 영역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고3 구제안을 발표한 대학들이 앞서 대책을 내놓은 서울대와 연세대보다 훨씬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을 제시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대학교별에 따르면 서울대와 같이 변경하

겠다며 대입전형 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한 대학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연세대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이 학종을 직접 손보는 대신 비교과 영역의 영향력이 적은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전형에서 비교과 점수에 만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소극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학종에서는 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게 전부다. 대신 일부 전형에서 출결, 봉사활동 등에 전원 만점을 주는 형태로 비교과를 뺐다. 이를 경기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 따랐다. 숙명여대는 논술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밝혔으나 학종에서는 종합적으로 감안해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비교과 강화나, 약화나, 중립이나... 학생부 관리 혼란=이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불만이 높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진학하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최저학력기준 등급 완화와 비교과 영역 중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 미반영이라는 정반대의 대책을 내놔 두 대학을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로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소리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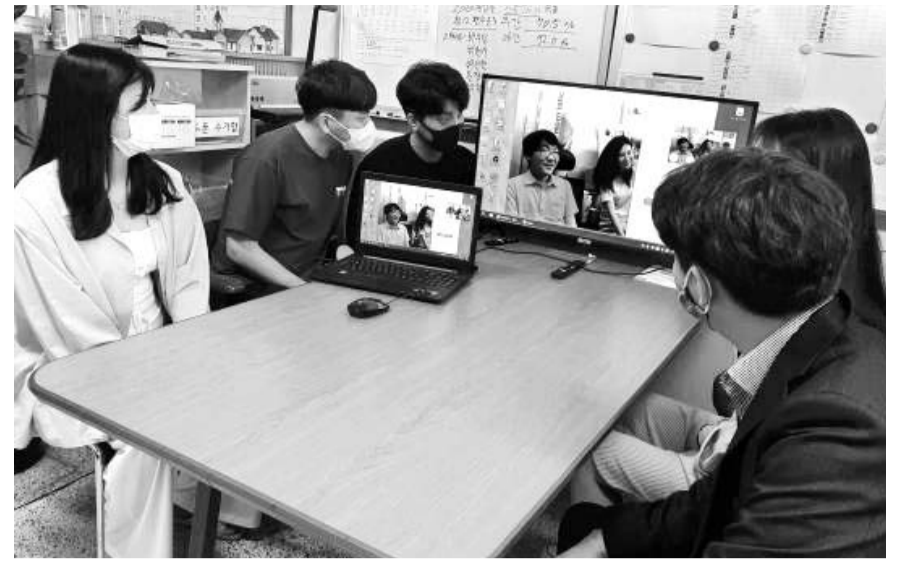
다른 대학들이 내놓은 대책도 비교과 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평가기준은 알 수 없으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결국 비교과 영역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한 고3 담임교사는 "서울지역 대학들의 입시계획 변경안을 보면 어떻게 바뀐 것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기 어렵다"며 "학부모와 고3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같은 상황에서 95%를 차지하는 재학생이 5%에 불과한 재수생에 비해 학종에서 별로 불리할 것도 없는데도, 고3 만을 위한 입시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입시전문가는 "대학이 코로나19 등 미래를 충분히 내다보고 재수생도 고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교육부가 너무 근시안적인 발표를 중용했다"며 "학교든 수험생이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비교과, 특기활동을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마음은 현장... 랜선 소통' 취업동아리, '코로나19'로 산업체 방문 대신 온라인 교류

동강대학교가 '랜선'으로 재학생과 산업체에 취업한 졸업 선배들과 소통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동강대(총장 이민숙) 산학협력처 취업팀은 '코로나19' 여파로 산업체 현장실습 등이 전면 취소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강대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Job-friend' 취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졸업 선배들과 만남의 장, 산업체 방문 등을 비롯해 ▲Pick-Me-Up 취업 아카데미 ▲꿈의 기업투어 경진대회 ▲취업동기부여 캠프 등 다채로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올해 동강대 취업동아리는 소방안전과 등 총 11개 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취업동아리 학생들은 취·창업 지원센터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산업체 관계자들과 화상 면담을 갖고 평소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며 취업활동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도 제작하고 있다.

이중 건축과 동아리 'D.C.T(Dream Come True)'는 최근 ㈜종합건축사사무소 '창'에서 일하는 졸업생 선배 박송아·박건우 씨와 온라인 화상 면담을 가졌다. 동아리 회장 김민지 씨는 "'코로나19'로 동아리 회원들과 산업체를 직접 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하지만 졸업생 선배와 선배들이 일하는 건축회사의 전문가를 온라인을 통해 만날 수 있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정서 취업부처장은 "'코로나19'로 외부와 대면 접촉이 많은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진행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과 사회 진출 동기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학교서 민주시민교육 운영 법적 토대 마련

전남교육청이 최근 의결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지역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생 대표를 추가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단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민주주의 진단을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첫 번째 역점과제로 정하고 교실수업 혁신과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개발,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교원 연수 운영,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전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유은학원' 광주여상, '입학식 장학금' 등 1억 지급

학교법인 유은학원 광주여상이 재학생들에게 '입학식 장학금' 등 1억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진)

광주여상은 최근 유은학원 총동문회와 광주여상 총동문회, 교직원 등이 기탁한 입학식 장학금 4810만원을 포함해 '후배사랑 장학금', '삼성꿈장학금', '기다리 장학금' 등 모두 1억 2800만원을 신입생 38명을 비롯한 147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에는 광주상고 16회 출신인 남양 에스티엔(남양동신) 최승근 회장(광주상고 16회)이 500만원, 광주여상 24회 출신인 박숙희 회계사가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유은학원 총동문회 장학재단 박석남 이사장은 "사회 각 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동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모아진 장학금이 후배들의 미래를 위한 탄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천수 광주여상 교장은 "동문선배들의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 활성화는 희망 인재 육성을 위한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여상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역인재 공무원 5명, KDB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35명, 금융권 17명, 강소기업 9명, 중소기업 53명 등 6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틈새경매스트(한국예탁결제원 성과연계 장학사업)에서 개인 및 단체 전국 1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실시한 교육부 주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EPIS '식품명인 대물림 공모사업' 선정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식품 전문분야 숙련기술 노하우 전수로 창업 지원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공모한 '2020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대물림 프로젝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돼 교육생을 모집한다.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대물림 프로젝트'는 식품 전문분야 숙련기술인의 기술과 노하우를 예비창업자나 기창업자들에게 전수해 전문 식품기술의 계승발전과 식품산업분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 사업자로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하고 호남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호남대학교 외식조리과학과 교수팀(학교장 김영균, 책임교수 송기희)을 중심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발효음식·공중합·음청류 등 4개분야로 특화해 현대 디지털 시장에 진입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교육 참가 원서는 호남대 외식조리과학과 홈페이지 '학교공지' 란에서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해 26일까지 이메일(gosunah1031@naver.com)이나 우편(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47 현명관 외식조리과학과 조교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담당자 010-9482-8230).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